

전세사기피해자 신속한 구제절차 진행

인천시, 사전조사 680건 접수 경매·공매 유예·중지 등 진행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 신청 접수했다.

시는 지난 5월달 특별법 시행 예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80명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매·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 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매·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

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

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인천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심정동 305-131 다담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환경의 날... '시민 환경한마당 행사' 성료

인천환경공단, 시민에 환경의 중요성 일깨워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3일 청라사업소에서 제28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시민 환경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온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말에 개최해, 어린이환경그림그리기대회, 환경과학체험부스 30동, 자원순환녹색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환경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다스리면서 인식할 수 있게 마련했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청라사업소에서 개최해 환경기초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그동안 환경기초 시설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면 안되는 시설로 멀어져야 하는 기피시설로 여겨 왔었다"면서 "이번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화적 공공시설로 인식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라사업소는 서구 경서동에 위치하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커피박을 재활용한 벽돌에 환경메세지를 적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환경공단)

고 있으며 일반 축구장(7,140㎡)의 약 2배 크기인, 총 부지 15만6000여 ㎡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총 면적 대비, 7.3% 수준)을 갖추고 있다. 소각

처리 후 발생한 열을 전기로 전환해 자생식물원과 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갯벌·연못 등의 생태공원·천연 잔디구장·테니스장·농구장·배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갖추

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와 자연치유 공간으로 세계적 제공하고 있다. 연간 이용자가 약 10만명에 이른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성과 전시



인천여성가족재단(재단)이 여성·가족정책 연구의 시민 체감도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재단 2층 소강당 앞에서 '정책연구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재단이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43편, 정책브리프 22편, 토론회 자료집 10편과 더불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포스터 22편 등을 전시한다. 보고서와 브리프 내용은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미애 대표이사는 "정책연구성과 전시회가 재단을 방문하는 시민·공무원·현장전문가에게 재단의 연구성과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직무교육 실시

인천시는 1일 경제자유구역청 G타워에서 2023년 인천광역시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컨설팅 및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내용, 추진단계 등의 세부적인 내용부터 사업추진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준비요령 등을 자문을 받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지방재정사업비 산출 방법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변경 사항 안내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사업 부서 담당자와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LIMAC의 연구원과의 1:1 맞춤형 형식의 사업내용·진행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천시 뮤지엄파크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군·구 사업들을 포함해 총 6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 준비 과정부터 실속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투자사업의 사업 지원을 미연에 방지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예산교육 진행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100여 명에게 '2023년 자치경찰 예산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 분야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지정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교통안전활동, 관광·지하철 경찰대 운영·풍속업소 단속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예산 편성에 따른 변화, 지방예산 개요 및 과정 등을 다뤘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간 차이점과 예산편성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시스템에 적용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사업을 추진한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배달앱 등록업소 위생 점검

인천시는 기존 상층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배달 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식중독 발생 가능성과 연관성이 깊은 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부터 배달음식점 연간 전수점검 및 분기별로 다소비 음식 취급 배달음식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분기에는 마리탕·양꼬치·치킨 및 족자탕 등 196개소를 대상으로 경인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건강장단 미발 및 기준규격 위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2분기는 쌀국수·초밥·카레 취급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재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안중삼 기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5년만에 개최

인천시 이·통장 한 자리 모여 그간 노고 격려하고 화합 도모

인천시는 2일 남동체육관에서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제7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대회로 인천시에 소속된 4500여 명의 이·통장들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다. 그동안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제6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날 한마음대회에는 인천시 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및 10개 군·구 단체인 각종 단체 등이 참석해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요 공식 행사로 이·통장연합회를 적극 지원한 NH농협은행 인천본부에 인천시장 감사패 수여, 이장·통장들의 불우 이웃돕기 성금 전달, 주요 내빈들과 이·통장들의 인천시 '비전담 세우기' 경기를 비롯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및 해사·고등법원 인천 유치권 지지하는 퍼포먼스 등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어 본행사에서는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4500여 명이 즐기는 화합의 시간을 보내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통장 연합회 박영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한뜻으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대응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5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한마음대회로 4500여 이·통장님들께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를 통해 "5일 개청을 앞둔 재외동포청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통장연합회 박영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5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에 그간의 수고로움을 모두 잊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우기철 대비 수해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수도권매립지, 8천㎡ 규모 수해폐기물 매립구역 운영 24시간 환경순찰반도 가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을 포함한 우기철 수도권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매립 및 우기철 매립장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 특성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폐기물이 조기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중삼 기자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설명회

인천경제청, 사업제안서 접수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개최된 영종국제도시 내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운영법인 공모 사전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및 관계자, 지역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내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계 유수의 명망있는 국제학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사전설명회 개최는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세계화에 걸맞은 선진교육과정이 가능한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영종에 글로벌 교육 핵심 영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